

빛고을 런웨에서 피어나는 K-패션의 꿈

제1회 빛고을 패션위크...25-26일 GCC VX스튜디오

패션과 뷰티의 융합으로 지역 문화산업의 새 장을 여는 '제1회 빛고을 패션위크'가 오는 25일(컨테스트)과 26일(패션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펼쳐진다.

컨테스트-본무대 연계...패션·뷰티 아우른 융합 무대

국내외 16명 디자이너 참여, 지역 청년 브랜드도 합류



단순한 런웨이를 넘어 지역 청년·신진 창작자와 산업 내 다양한 직군을 연결하는 '토탈 뷰티' 기반의 패션문화 플랫폼을 지향하는 행사다.

빛고을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와 (주)아반이 주최·주관하는 민간 협력 중심의 이번 패션위크에는 국내외 디자이너부터 아마추어 창작자, 주니어 세대까지 참여해 패션·예술·뷰티의 무대를 넓힌다.

특히 국내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패션위크가 없었던 광주에서 열리는 첫 행사로, 지역 패션산업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K-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25일 '모텔 컨테스트'와 26일 '패션쇼'로 구성된다. 전국에서 200여명이 지원해 예선·사전심사를 통과한 90여명이 컨테스트에 오른다.

부문은 ▲주니어(14세 이하) ▲코리아(24세 이하) ▲비온드(39세 이하) ▲클래식(40세 이상) 등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각 부문별 우승자와 파이널 위너(200만원)에게 총 1천만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포토제닉·베스트드레스상 등 부문별 시상도 이뤄진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선발된 25명 내외의 모델이 다음날 패션쇼 본무대에 직접 서게 돼 '선발이 곧 무대가 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다. 완성된 모델 중심의 기존 패션위크와 달리, K-모델을 현장에서 육성하고 등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패션쇼에는 해외 10명(호주·캐나다·싱가포르·몽골·베트남 등)과 국내 6명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국내 참여 디자이너 가운데는 광주 출신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 'BACO92'(대표 김수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이 포함됐다. 각 디자이너는 12-15작을 선보이며, 약 180벌이 런웨이를 채운다.

'토탈 뷰티' 콘셉트 역시 차별점이다. 의상뿐 아니라 헤어·메이크업·네일·액세서리·신발·화장품 등 패션 전반을 함께 엮어 하나의 산업 흐름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지역 뷰티 전문가와 청년 디자이너, 신진 브랜드가 협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 토대를 구축한다.

관람은 홈페이지 사전 신청을 받아 초대 방식으로 진행되며, 좌석은 약 250석이다.

김영준 빛고을 패션위크 조직위원장은 "빛고을 패션위크는 광주만의 K-모델과 K-패션을 세계로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이어가며 디자이너 교류, 창작자 인큐베이팅, 산학협력 기반의 청년 디자이너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붓끝에 머무는 행복, 수묵의 노래로 피어나다

제46회 수묵회전...24-29일 리아트센터

수묵의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잇는 '제46회 수묵회전'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동구 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붓끝에 머무는 행복, 회화의 노래'를 주제로 마련됐다.

참여 작가는 고화석·곽마리아·김대원·김영순·김인선·김향신·나지숙·박문수·박양수·박희석·배문정·이동영·이보애·이안자·이형남·장복수·최현철·허영리·홍성국 총 19명이다.

1989년 창립된 수묵회는 제1회 전시에서 순수한 수묵의 정갈한 선으로 출발해 시대의 흐름

을 담아내며 다양한 장르로 저변을 넓혀왔다. 이는 '수묵의 길'이 폭어온 깊은 사유와 넓은 세계를 증명하는 여정이자, 오늘의 수묵회가 보여주는 예술적 현재를 상징한다. 특히 수묵회는 남도 화맥을 이은 회재 문장호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리며 매년 정기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풍경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부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추상화까지, 각 작가의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최현철 수묵회 회장은 "그림 속에 담긴 희망과 빛을 통해 인간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행복을 노래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가 관객



최현철작 '우주의 정보'

들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기쁨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개막작 '철들 무렵' 등 81편 작품 상영

촬영현장서 전하는 GV·영화 체험까지

수십 개의 컨테이너 사이, 숨 가쁜 추격전이 펼쳐졌던 영화 '극한직업'의 명장면이 이번엔 스크린 밖 현실로 돌아온다. '서울의 봄', '명량' 등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한국영화들이 지나간 광양항이 영화상영관으로 변신하는 것. 천만 관객을 사로잡았던 촬영지, 광양항 컨테이너 아적장이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의 무대로 변신해 특별상영관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영화제 주제는 '빛과 철로 물들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스타인벡코리아 광양항 '컨테이너 특별관'을 비롯해 광양시민광장, CGV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등에서 상영과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남도영화제'는 전남영상위원회가 2년 단위 시즌제로 운영하는 지역소화형 영화제다. 시즌제로 영화제를 이어가는 것은 단발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영화인 프리를 실질적으로 쌓아가겠다는 취지다. 2023년 시즌1 순천이 남도의 정치와 삶의 풍경을 중심으로 풀어냈다면, 이번엔 '빛과 철'이라는 도시적 상상을 영화적인 언어로 확장하며 그 실험을 이어간다.

영화제에서는 총 81편(장편 33, 단편 48)을 선보인다. 경쟁 섹션엔 장편 8편·단편 20편이 최종 진출해, 2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이후, 심사위원단 관람을 거쳐 수상작을 가린다.

비경쟁 부문은 '남도의 시선', '남도의 피크닉', '남도의 스펙트럼'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남도의 시선'은 동시대 국제 영화의 지형을 제시하며, 보다 묵직한 주제의 작품을 통해 영화 속 새로운 시도를 조명한다.

개막작은 야의 상영에 어울리는 국내 가족영화 '철들 무렵'(정승오 감독)이다.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서로 축제의 문을 연다. 폐막작은 프랑스 엠마누엘 쿠르 감독의 '파파르'로, 경쟁 섹션 시상 직후 상영해 여운을 깊게 남길 예정이다.

박정숙 남도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광양항이라는 산업적 공간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해 지역성과 예술성을 함께 살리고자 했다"며 "컨테이너가 스크린이 되는 특별한 상영 환경 속에서 관객이 남도의 빛과 철, 그리고 영화의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